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념 신앙 수기 공모전 수상작

“성당 알림이”

최 다 인 스텔라 (대림동성당 초등부 5학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례를 받던 날, 하느님께 예수님께 성모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그날이 아직도 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엄마는 식사할 때 기도를 할머니 몰래 했었어요. 오빠와 저도 마찬가지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후다닥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종교가 달라서 식사 전후 기도할 때마다 엄청 눈동자를 요리조리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기도를 끝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성당이 있어요. 오빠와 나는 속닥속닥 계획을 세웠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산책하러 가자고 하고 성당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성모님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성모님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교리 시간에 배운 걸 설명해드렸어요.

오빠와 제가 엄마한테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때 어려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오빠는 복사를 하고 있어서 엄청 설명을 잘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시며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애길 하셔서 엄마같이 다 들어 주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오빠의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함께 할머니 댁에 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성당에 미사를 함께 갈 수 있기를 성모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날 성모님이 저한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당에 다니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때 오빠와 저는 괜히 뿌듯하고 가슴이 쿵쿵쿵쿵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 댁에 가면 뿌듯하고 가슴이 쿵쿵쿵쿵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오빠와 저도 함께 기도문을 따라 읽고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세례명은 바오로, 할머니 세례명은 안나예요. 한복도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의 모습이 엄청 예뻐 보였어요. 마치 제가 첫영성체 때 흰색 원피스를 입은 것처럼 예뻐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오빠와 저에게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그 후로는 할머니 댁에 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성당에 오순도순 미사를 드리러 갈 수가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늘 설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후에 첫영성체를 했어요.

오빠가 신부님 옆에서 하얀 복사복을 입고 복사를 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지 엄청 부러웠어요. 그래서 복사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전례 봉사를 하고 있고 오빠가 복사를 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해서 엄청 슬펐어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엄마가 주일 미사를 몇 번을 가는 것을 보고 ‘엄마도 많이 힘들겠구나!’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슬퍼하는 제 모습을 보고, “복사가 하고 싶으면

복사를 해도 돼.” 하고 얘기해 주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더 많이 힘들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엄마 괜찮아?”라고 물었더니 은총을 하나 더 받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엄마의 얼굴이 진짜 행복해 보여서 안심하고 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는 남매 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빠와 제가 함께 복사를 할 때면 아빠와 엄마의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져요. 엄마가 우리 복사 사진을 찍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보내면 두 분은 저희가 천사처럼 예쁘다고 엄청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면 오빠와 저는 으쓱으쓱해지고 또 더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행복한 시간들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멈추게 되면서 이제 할머니 댁을 가도 미사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함께 미사를 다녔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와 새벽 복사를 하러 성당에 갔는데 할머니들이 성모동산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모두 우리 할머니 같아서 복사 서면서 오늘 성모동산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소원이 꼭 이뤄지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어요.

근데 차 안에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빠와 저한테 ‘성당 알림이 손자’라고 하세요. 저희 때문에 성당에 다니게 되시고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셨다고요.

예전에 교회에 다닐 때는 성모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셨대요. 아직도 성당과 교회가 하느님을 똑같이 믿는데 성모님을 믿지 않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마가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믿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같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 같이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지만,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앞으로 오빠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꿈을 이뤄 주셔서 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가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초대해서 우리의 어릴 적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미사를 가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힘차게 기도하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중간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다시 그 발자국을 잊지 않고 따라가길 오빠와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깜짝 선물을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세요.